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146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2월 24일(수) 16:10

□ 장소 : Zoom 온라인 회의방

□ 참석 이사 : 재적 이사 7명 중 이사 5명 참석

참 석 - 김동범, 김정열, 한명섭, 김주관, 김동호(이상 5명)

불 참 - 엄중숙, 오선아 (이상 2명)

배 석 -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서혜미, 총무팀장 김진선



개회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의장인 대표이사 김동범은 상임이사 김동호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고, 상임이사는 재적이사 7인 중 이사 5인이 출석하여 개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14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개회시간 18:10).

의장은 제1호 보고안건에 대한 보고를 상임이사에게 요청하다.

보고안건 제1호: 제145차 이사회 결과보고

상임이사가 제1호 안건에 대해 보고자료대로 보고하다.

의장은 승인 여부를 묻다. 한명섭 이사가 원안 승인을 동의하고, 김정열 이사가 재청하다. 의장은, 이의가 없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어, 보고안건 1호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보고안건 제2호: 금천구청 법인 지도점검 결과 보고

상임이사가 보고안건 2호를 자료대로 보고하다.

의장은 이사의 의견을 구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은 보고안건 2호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보고안건 제3호: 벌과금 및 보상금 등에 의한 압류 상황 보고

상임이사가 보고안건 3호를 자료대로 보고하다.

의장은 이사의 의견을 구하다.

김주관 이사는 부당해고 등과 관련된 보상금 등으로 지속적으로 법인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 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이를 우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다. 의장은 현재 루디아의집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법인 등기를 갱신하면서 통장을 확인한 결과 압류 및 추징으로 현금성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난망한 상황이라 말한다. 상임이사는 강제이행금의 단계적 납부계획을 제시하여 법인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후원금 등 수입이 발생 되면 부분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한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다른 의견이 없어, 의장은 보고안건 3호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심의의안 제1호: 법인 2022년 세입세출 결산 건

의장은 심의안의 일괄 상정을 묻고,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의장은 심의1호부터 심의6호까지의 심의안건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다.

상임이사가 심의안건 1호를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의장은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이사들은 다른 의견이 없다 말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1호 법인 2022년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을 묻다.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1호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2호: 법인 2023년 예산 건

상임이사가 심의안건 2호를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김정열 이사는 점자출판사업 활성화로 법인 세입의 증가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다.

한명섭 이사가 예산 원안 승인을 동의하고, 김정열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법인 2023년 예산(안)의 승인을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2호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3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건

의장의 요청으로, 서혜미 관장과 김진선 팀장이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3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여부를 묻다. 한명섭 이사가 원안 승인을 동의하고, 김정열 이사, 김동호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2호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4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건

의장의 요청으로, 서혜미 관장과 김진선 팀장이 회의자료대로 설명하다.

한명섭 이사는 난방비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묻다, 복지관장은 서울시시설협회에서 서울시에 추가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라 추후 별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다.

한명섭 이사는 인건비 부족이 발생할지 우려하다. 복지관장은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 기준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지원금이 적게 배정된 이유가 있으므로 추후 서울시가 조정하여 추가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다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4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묻다.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4호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5호: 법인 정관 변경 건

의장의 요청으로, 상임이사가 심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

의장은, 목적변경은 관련 목적사업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이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하다. 김주관 이사, 한명섭 이사가 이에 동의하다.

한명섭 이사는 제4조 변경안과 관련하여 금천구청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

으므로, 현재의 개정안을 금천구청에 제시하되 금천구청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정안을 승인할 것을 제안하다. 다른 이사 모두 이에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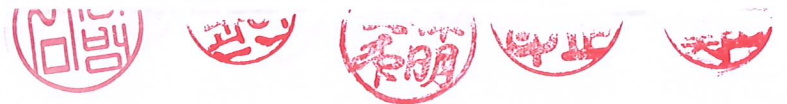
의장은, 심의안 5호 정관변경안은 제1조 목적부분의 변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하고, 제4조 변경은 금천구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제3조 1항과 2항, 제25조 3항의 개정, 부칙의 신설은 제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묻다.

김동호 이사가 동의하고, 김정열, 한명섭, 김주관 이사가 제청하다. 의장은 일부 수정한 정관변경안에 동의하는 지 묻고,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이사들은 다른 의견이 없다 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5호 정관변경안은 원안에서 일부 수정되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심의의안 제6호: 법인 감사 선임 건



의장이 요청하여, 상임이사가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감사 후보자로 김대현 회계사(현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감사)와 홍순봉 회장(현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감사 후보로 추천되었음을 보고하다.

한명섭 이사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법인은 감사가 두 명일 경우 한 명은 서울시가 파견하는 회계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 법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현재의 두 피추천인 중 우선 순위를 정해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다른 이사들이 이에 동의하다.

의장은 이 사항을 금천구청과 서울시에 확인해 보고, 서울시에 의한 감사 추천을 수용해야하는 경우, 김대현 감사는 유지하고, 홍순봉 감사는 철회하는

것으로 제안하다. 다른 이사들이 이에 동의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는지 묻고, 이사들의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제6호 감사선임안은, 김대현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홍순봉 회장은 서울시의 감사 파견 여부를 확인한 뒤, 조건부로 감사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인지 물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심의안건 6호가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폐회선언


의장은 기타 논의 사항을 묻다.


기타 사항이 없자, 의장이 폐회 동의를 구해, 이사 전원이 '예'라고 답하다. 의장은 참석한 이사에 감사 표를 표한 후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146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간 20:05)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들은 날인하다.

2023. 2. 24.

대표이사 김동범 (인) 

이사 김정열 (인) 

이사 김주관 (인) 

이사 김동호 (인) 

이사 한명섭 (인) 